

주님의 회복 안의 유일한 일

(토요일—오전 1부 집회)

메시지 7

주님을 섬김으로 감추어진 만나와 짝 난 지팡이와 생명의 법이신 그분을 누림

성경: 겔 44:10-11, 15-18, 행 13:1-2, 히 9:3-4

- I.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섬기며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섬기리라 그들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섬기게 되리라 ...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와 나를 섬기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아와 나를 섬기며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겔 44:10-11, 15-16.
- A.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성전을 섬기는 사역이 있을 뿐 아니라 더 좋은 사역, 곧 주님을 섬기는 사역이 있다.
- B.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 있으신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내(하나님)’게 속한 사람들을 얻으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내’ 앞에 있으면서 ‘나’를 섬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는 그렇게 많은 것들에 있지 않고, 도리어 ‘나’에게 있다—겔 44:15-16.
- C.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성전을 경시한다는 뜻이 아니다. 주님을 섬기는 이들은 또한 복음을 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고 형제자매들을 도와 진보하게 할 것이지만, 그들의 한 가지 목표는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그들의 초점은 주님 자신이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위해 사람들을 귀중히 여긴다.
- D.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주님께만 초점을 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형제자매들 또한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의 여부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첫째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 E.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주님의 만족, 주님의 마음의 갈망, 주님의 행복, 주님의 목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 F. 주님의 일 안에는 우리의 육체에 흥미롭고 매력적인 분야들이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영역들은 오로지 우리 자신의 기쁨과 영광만을 위하기 때문이다—비교 고후 4:5.
- G. 어떤 사람도 기도 안에서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을 접촉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섬길 수 없다. 영적인 능력은 말씀을 전파하는 능력에 있지 않고 기도하는 능력에 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가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큰 내적인 힘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 H. 우리가 지성소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더욱 많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
- I.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다(겔 44:15). 이것은 주께 넘은 죄를 짓는 것에서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시 19:13).
- J.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름과 피를 드려야 했다—겔 44:15.
1. 예물들의 기름은 그리스도의 인격의 소중함을 예표하고, 반면에 피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상징한다.
 2.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피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위한 것이고, 기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 K.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베로 만든 옷을 입어야 했으며, 양털 옷이나 땀이 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입어서는 안 되었다—겔 44:17-18.
1. 베옷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시는 영 안에서 날마다 살고 행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한 생활과 행함은 순수하고 깨끗하며 곱다.
 2. 양털 옷은 제사장들을 땀이 나게 했는데(겔 44:18), 이 땀은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없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자신의 에너지와 힘으로 수고한다는 표시이다(창 3:19).
 3. 땀이 나게 하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오는 축복이 없이 사람의 노력에서 비롯되는 일이다.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땀이 전혀 나지 않는 일, 곧 사람의 노력과 육체에 속한 힘이 없는 일을 해야 한다.
 4.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분한 시간 동안 머물고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대면한다면, 사람 앞에서 땀을 흘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의 힘을 들이고서 가장 많은 양의 일을 성취할 수 있다.
- L. “안디옥에 있는 교회, 곧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 신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킬 일이 있다.’”—행 13:1-2.
1. 이것이 신약의 일이고 신약의 일을 위한 유일한 원칙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일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만 계시될 수 있다.
 2. 오직 주님을 섬길 때에만,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을 내보내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무질서하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일하도록 위임하는 권위를 갖고 계신다.
 3.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밖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그만 두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밖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근거해야 한다.
 4.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으로 인하여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갈망으로 인하여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의 갈망은 주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입지도 없다.
- II. “둘째 휘장 뒤에는 다른 한 칸의 장막이 있었는데, 그곳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지성소는 ... 전체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 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히 9:3-4.

- A. 감추어진 만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없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몫이다. 우리와 주님 사이에 거리가 없을 때, 우리는 가장 친밀하고도 감추어진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누린다. 이것이 감추어진 만나, 곧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몫에 대한 누림이다—출 16:31-36.
1. 버가모 교회의 상태를 이기는 것은 오늘날의 기독교의 일반적인 실행으로부터 자신을 분별시키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에서 멀리 벗어난 모든 사람이 맛볼 수 없는,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를 누린다—계 2:17.
 2. 우리가 감추어진 만나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간격도 없어야 한다. 우리와 주님 사이의 모든 간격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3.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분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가지며 그분의 마음과 의도를 알게 된다. 바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주님으로, 주님의 의도로, 주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
 4.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임을 가질 것이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 B. 썩 난 지팡이는 그리스도, 곧 부활하신 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생활과 부활 생명이 되셔야 하고, 이 생명이 썩트고 쪼개지며 열매를 맺어 성숙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민 17:8.
1.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배역한 후에, 하나님은 열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따라 열두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증거막 안, 언약궤 앞에 두라고 명하셨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썩이 나리니” 라고 말씀하셨다—민 17:5.
 2. 열두 지팡이는 모두 잎이 없고 뿌리가 없고 메마르고 죽어 있었으며, 무엇이든 썩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이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이며, 봉사의 근거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무관한 어떤 것임을 본다. 따라서 썩 난 지팡이는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에 권위가 있게 하신다.
 3. 모든 봉사에 적용되는 원칙은 썩 난 지팡이에 있다. 하나님은 열한 개의 지팡이 모두를 지도자들에게 돌려주셨지만, 아론의 지팡이는 언약궤 안에 두어 영원한 기념으로 삼으셨다. 이것은 부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봉사에서 영원한 원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민 17:9-10.
 - a. 부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고 우리에게서 비롯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부활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b. 부활은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활을 아는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소망을 포기했다. 그들은 자신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 c. 타고난 힘이 남아 있다면 부활의 능력은 나타날 입지를 얻지 못한다. 사라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었다면 이삭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창 18:10-15, 21:1-3, 6-7.
 - d.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타고난 영역에 속한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부활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자신이 완전히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그 전에 반드시 자기 자신이 끝나야 한다—마 19:26, 막 10:27, 눅 18:27.

- e. 자신의 무능함을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 부활은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신 분임을 의미한다—비교 고후 1:8-9, 4:7.
- C. 율법의 돌판인 언약의 돌판은 신성한 생명의 법을 상징한다. 이 신성한 생명의 법은 신성한 생명의 자연스런 힘, 자동적인 기능, 고유한 능력, 신성한 역량이다—렘 31:33, 히 8:10, 비교 롬 8:10, 6, 11, 10:12-13.
 - 1. 생명의 법, 곧 생명의 이러한 신성한 역량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 a. 이 역량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살 수 있으며,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으로 조성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증가, 곧 그분의 확대가 되어 그분의 영원한 표현을 위한 그분의 충만이 되기 위한 것이다—엡 1:22-23, 3:19-21.
 - b. 더 나아가, 생명의 내적인 법의 역량은 우리를 온갖 기능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조성한다—엡 4:11, 16.
 - 2.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동안,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형태 짓고 그분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는 기능을 한다—롬 8:2, 29.
 - a. 생명의 법은 잘못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형태를 규제한다.
 - b. 생명의 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주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생명이 자라는 동안에, 생명의 법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형태 짓는, 곧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게 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기능을 발휘한다.
 - c. 생명의 법의 기능을 통하여,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우주적인 표현을 얻으실 것이다.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부활이란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부활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부활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았고, 우리의 능력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것이다. 부활은 내가 할 수 없고 나의 영역을 벗어난 모든 것이다. 지팡이에 색을 칠하고 꽃 모양을 새길 수 있겠지만 싹을 내는 일은 할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사용한 지 십여 년이 지난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또한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도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사라는 이삭을 낳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롬 4:19). 그러므로 사라는 부활을 대표한다.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이란 바로 자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 한다는 것이고, 자신이 어떠한지는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총명하고 말을 잘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어느 정도 영적이라면 그 영성의 근거는 당신 자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이루신 일에 있는 것이다. 만일 아론이 어리석게도 다른 사람에게 “나의 지팡이가 너희들의 지팡이와 다르고 나의 지팡이가 남의 것보다 더 빛이 나고 곧기 때문에 싹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이야기겠는가? 우리가 만일 한 순간이라도 자기가 남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만일 우리에게 약간의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일하신 결과이다. 부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의미이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다. 아브라함은 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 불렀는가?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을 때 사라가 듣고 웃었기 때문이다. 사라가 웃은 것은 당연하다. 그녀는 자신의 경수가 끊어지고 태가 끊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라고 자문하며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녀는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웃어버렸다. 두 번째는 다음해에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출산했을 때, 이번에는 그녀가 정말 기쁨으로 웃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이의 이름을 웃음을 의미하는 이삭이라고 하셨다(창 18:10-15, 21:1-3, 6-7). 첫째는 자신이 할 수 없음으로 웃었고, 두 번째는 확실히 이루어졌음으로 웃었다. 사람에게 만일 첫 번째의 웃음이 없다면 두 번째의 웃음이 없다. 사람이 먼저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두 번째로 체험하지 못할 것이다. 사라는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자 기쁨으로 웃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은 자신 안에는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의미한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은 할 수 없음을 증언하지만, 많은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부터 우리는 고개 숙여 정말로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히 보기 바란다. 만일 봉사의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인해 웃는다면, 그는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자신을 철저히 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것을 하셨다.”라고 말하며 또 한 번 웃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권위가 조금 나타날 때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이것은 당신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부활은 나는 할 수 없으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는 것이다.

부활은 봉사의 영원한 원칙임

모든 봉사에 적용되는 원칙은 싹 난 지팡이에 있다. 하나님은 다른 열한 개의 지팡이 모두를 지도자들에게 돌려주셨지만, 아론의 싹 난 지팡이는 언약궤 안에 두어 영원한 기념으로 삼으셨다. 이것은 부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봉사에서 영원한 원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활에 근거한 것이지 자신에 근거하지 않음을 증언하신다. 주님을 향한 모든 봉사는 반드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부활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다. 부활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다. 무릇 자신을 팬찮다고 잘못 평가하는 사람은 영원히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추호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은 대단한 사람이고 유능하고 유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은 아마 부활의 교리와 이유와 결과는 알지 모르나 부활은 모르는 사람이다. 부활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며 자신은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안다. 타고난 힘이 남아 있다면 부활의 능력은 나타날 입지를 얻지 못한다. 사라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었다면 이삭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타고난 영역에 속한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부활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가 아닌 부활 안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창조가 아닌 부활을 통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로 나타날 때 그 앞에는 죽음이 필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로 나타날 때는 그 앞에 죽음이 필요하다. 무릇 창조된 것은 그 앞에 선행되는 것이 없으나 부활한 모든 것은 그 앞에 선행되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창조를 통해 소유한 것을 의존해 산다면 부활을 체험할 수 없다. 그에게 창조를 통해 얻은 능력만 있다면 그에게는 아직 부활이 없는 것이다. 그의 존재가 창조된 그대로라면 그에게는 부활이 없는 것이다. 또한 그가 창조될 때 소유한 것만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는 부활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죽은 개와 같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할 때 여전이 우리 안에 살아 있는 어떤 것이 있음

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당신은 창조되기 위해 죽음을 알 필요가 없었지만,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저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저를 통하여 그것을 행하신 것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당신이 이렇게 엎드려질 때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일하신 것만을 갖게 될 것이다. 오늘 이후로 다시는 혼동하지 말라. 죽어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며, 살아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님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죽음과 관계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며 생명과 관계된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자주 혼동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혼동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막바지에 이르러야 자신이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그녀는 자기 힘으로 이삭을 낳았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나귀 새끼 역시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친 것이 자기를 향한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과 우리에게 속한 것을 혼동하지 않는 지점까지 주님께 서 우리를 이끄시길 원한다.

모든 권위자는 마땅히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권위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권위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단지 권위를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것을 본 사람만이 대표 권위이다. 그러므로 형제자매여, 나는 여러분이 나가서 일을 할 때 어리석게 자신에게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언제든지 부활의 원칙에 어긋날 때 권위는 사라진다. 언제든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울 때 권위는 사라진다. 메마른 지팡이는 죽음만을 드러낼 수 있을 뿐이다. 권위는 타고난 생명이 아닌 부활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부활이 있을 때 권위도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타고난 것이다. 그러므로 권위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

보배와 질그릇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한 말은 여기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나는 자주 바울이 이 장에서 놀라운 한 쪽의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질그릇, 곧 흙으로 만들어진 토기로 비유했고 자신 안에 있는 부활 능력을 보배로 비유했다. 이것은 또한 향유를 옥합에 담은 것과 같다. 바울은 자기 자신은 질그릇에 지나지 않지만, 그의 안에 있는 보배에는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인식했다. 이 둘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바울은 이 부활의 능력은 보배이며 동시에 탁월한 능력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정직한 사람의 참된 말이다. 탁월하다고 말했으므로 탁월한 것이다. 이어서 자신을 의지하면 사망에서 압박을 받지만, 보배를 의지하면 짓눌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자신을 의지할 때 나갈 길을 찾을 수 없지만, 보배를 의지할 때 나갈 길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의지한다면 박해를 받지만, 보배를 따르면 버림받지 않는다. 자신을 의지하면 맞아 쓰러지지만, 보배를 의지하면 멸망하지 않는다. 자신으로 말하자면 사망에서 대적의 압박을 받지만, 또 다른 면에 있어서 보배는 짓눌리지 않는다. 한 쪽은 죽음이지만 다른 쪽은 생명이다. 한 쪽에서는 자주 죽음에 넘겨지지만, 다른 쪽에서는 생명이 산출된다. 한 쪽에서는 죽음이 운행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생명이 나타난다.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은 바울의 사역의 중심을 열어 준다. 여기에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의 원칙을 발견한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모두 죽음뿐이고, 주님에게 있는 것은 모두 부활이다.

부활이 있을 때 비로소 권위가 있음

만일 우리에게 권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결코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각 사람은 모든 권위가 주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당신은 단지 이 땅에서 주님의 권위를 유지하는 사람일 뿐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권위는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당신에게서 권위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타고난 것 안에 있을 때 즉시 당신은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고 권위도 없게 된다. 오직 부활로부터 나온 것만이 권위를 가져 온다. 권위는

부활을 근거로 한 것이지 당신 자신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지팡이는 하나님 앞에 놓일 수 없다. 오직 부활의 지팡이만이 하나님 앞에 놓일 수 있다. 더욱 우리는 짝 난 지팡이에서 부활을 발견한다. 이 부활은 일반적인 부활이 아닌 완전한 부활이다. 이 지팡이는 부활 생명을 희미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이 지팡이를 통해 부활 생명은 짝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부활 생명이다. 성숙한 부활 생명만이 하나님의 대표 권위가 될 수 있다. 당신을 통해 부활 생명이 더 나타날수록 당신은 더 큰 권위를 갖게 된다. (*권위와 순복, 207-214쪽*)